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최상호 신임 본부장 취임**



◀ 최상호 본부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신임 본부장에 최상호(63)씨가 취임했으며, 12월 21일부터 방역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의 본부장 공개모집은 2005년 1월 31일 기획예산처의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기관으로 고시됨에 따라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 까지 공모 후 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12월 9일 정기이사

회에서 최상호씨를 복수후보자 중 만장일치로 선임했다.

방역본부 최상호 신임본부장은 농촌진흥청에서 6년 동안 연구관리, 예산, 조직 등 행정업무를 담당했으며, 25년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기생충과, 병리진단과, 해외전염병과 과장과 축산물 검사부, 질병연구부 부장을 역임하면서 국가 방역 정책 사업에 적극 동참했다.

**축산연구소
가금종합연구단지 조성 기념비 제막식**



축산연구소(소장 윤상기)는 지난달 21일에 그동안 가금연구의 산실이었던 대전 계산동 시대를 마감하고 축산자원개발부(성환)에 가금종합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이를 기념하고자 기념비 제막식을 거행하였다.공사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로 부지면적 10ha(30,000평)에 연구용계사 26동(10,110㎡, 3,058평)과 부속시설인 친환경계사, 계분처리장, 방역시설 등 7동(2,481㎡, 750평), 그리고 각종 분석과 실험 등 원활한 연구사업을 위한 가금종합연구동(2,957㎡ 895평)을 건립하였다.윤상기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금종합연구단지 조성을 계기로 명실 공히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자

심과 함께 무한 경쟁의 축산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최상의 시설을 기반으로 정책과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를 충실하게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자금 분야의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농림부

동아일보 AI 보도 관련 사항

농림부는 지난 12월 19일 동아일보에 보도된 "AI 바이러스 전국 8곳서 50건 검출" 제목의 기사와 관련하여, 검출된 50건은 모두 저병원성으로 국내에서는 "HPAI(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전국 25개 철새도래지와 민통선 지역을 대상으로 철새와 야생조류 배설물을 수거해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총 50점(민통선 33점, 철새 도래지 17점)의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 저병원성 바이러스는 해마다 검출되어 왔으며, 지난해 겨울 특별대책기간에도 34점이 검출된 바 있었다.

수의과학기술개발연구사업 평가회 개최

지난 5일~8일까지 4일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본원 대강당 2층에서 '05년도 연차실적 평가 및 '06년 신규과제 설계평가회가 열렸다.

이과 관련 학계, 유관기관, 축산단체 등 전문가들이 모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애로사항이나 관련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도출된 주요 현안사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였다. 각 요일별로 주제를 나누어 진행됐으며 6일에는 바이러스와 조류질병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류질병분야는 ND바이러스 특성, LPAI사독백신개발, MG발생현황, 닭 살모넬라 항체검출, ELISA kit 개발, 국내 AI 병원성연구 등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으로 나뉘어져 평가회가 이루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제2차 항생제 내성 국제심포지엄 및 제3차 비전보고대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지난 13일(화)~14일(수)까지 그랜드힐튼 컨벤션센터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2차 항생제 내성 국제심포지엄 및 제3차 비전보고대회가 각각 열렸다. 국가항생제내성안전관리사업 수행의 일환으로 올바른 항생제 사용 방안과 내성에 대한 국내·외 정보 공유를 위하여 제2차 항생제 내성 국제심포지엄 및 제3차 비전보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진국의 항생제 내성억제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나아가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평가받았다. 식품안전청 대강

당에서 열린 비전보고대회에서는 본지 필자로 활약하고 있는 이인호 이사(글로벌 네트워크)가 국가 항생제내성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농림부

제2차 항생제 사용절감 연구모임 회의



농림부는 지난 16일(금)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제2차 항생제 사용절감 연구모임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제1차 모임에서 항생제 사용실태, 내성균 출현정도,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내용 등의 논제에 이어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김영석 고문(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이 '동물약품 유통현황과 항균제 절감대책'을, 이인호 이사(글로벌 네트워크)가 '각국의 항생제 등 동물약품 사용실태와 절감대책'을, 정태성 교수(경상대 수의대)가 '수산물 항생제 사용실태와 절감방안'을, 이외에 무항생제 축산의 위한 HJ 바이오다이내믹 축산 기술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사)한국자조금연구원

축산자조금 제도개선에 관한 설명회

(사)한국자조금연구원(이사장 박영인)은 지난



12일 양재동 소재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축산관련 기자들과 자조금 담당자를 초청하여 '축산자조금 제도개선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박종수 원장은 자조금제도의 주요 원칙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외국의 경우 정부에서 자조금을 지원해주고 있는 예는 극히 드물다고 언급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축산자조금이 활성화되기를 기원하였다. 또한 축산자조금사업이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무임승차가 없는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함을 설명하였다.

이어 박영인 이사장은 '축산자조금법의 합리적인 개선방안'과 '자조금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을 설명하였다.

특히 축산단체를 축산업과 축산업자로 변경하여 기존 축산단체만의 자조금이 아닌 축산업자 전체의 자조금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조금 대의원을 최고 결의 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도 자조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하였다.

전국토종닭연합회 한국토종닭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개최



전국토종닭연합회(회장 정두영)는 지난 14일 유성 아드리아 호텔에서 한국토종닭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그 동안 국내 닭고기 시장의 소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토종닭이 국내시장의 특수성과 수입닭고기, 백세미 등으로 인해 토종닭이 지닌 올바른 가치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어 '한국형 토종닭'의 명확한 기준을 세우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세미나 1부에서는 정선박 박사(전 축산시험장장)의 진행으로 '토종닭 산업 정책방안'을 조병임 사무관(농림부)이, '한국토종닭품종보존과 연구 및 발전방안'을 이상진 부장(축산연구소 축산자원개발부)이, '외국토종닭산업 현황과 성공사례'를 박근식 박사(전 수의과학검역원장)가 각각 발표하였으며, 2부는 한성욱 박사(전 충남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한국토종닭 정의'를 최철환 박사(축산연구소)가, '한국토종닭 산업의 현황과 발전과제'를 문정진 총무(토종닭연합회)가 각각 발표하였다.

이날 재래닭과 토종닭의 정의를 발표한 최철환 박사는 '재래닭 순종'은 우리나라에서 과거

부터 길러온 닭으로 10세대 이상 순수혈통을 유지해온 닭이라 정의하였으며, '토종닭 순종'은 재래닭 순종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기후와 환경에 적응한 외국품종으로 10세대 이상 순수혈통을 유지해온 닭이라 정의하였다. 또한 재래닭 순종과 토종닭 순종의 교잡으로 생산된 닭을 '토종닭'으로 명명하고 2원 또는 3원 교잡종을 토종닭 종계로, 3원 또는 4원 교잡종을 토종닭 실용계로 정의한다고 발표하였다. 단 이 단계에서 토종닭의 순수 혈액비율이 100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은 닭들은 토종닭이라 부를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토종닭 관리방안으로는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종계검사에 의한 품종검증 절차를 밟는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종계등록 및 종계검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정책을 발표한 조병임 사무관은 토종닭 산업의 안정화를 위해 양계수급조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백세미 등과 함께 DB구축을 통한 안정화 사업을 펼쳐나갈 예정임을 밝혔으며, 브랜드화 및 다양한 요리 개발로 더욱 발전하는 토종닭 산업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문정진 총무는 토종닭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토종닭에 대한 인증제도를 만들어 소비자로 하여금 토종닭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갈 것을 언급하였다.

박근식 박사는 일본, 대만 등 토종닭 산업이 정착된 나라에 대한 실증사례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토종닭 산업을 발전을 위해 '한국 토종닭 산업강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에 대한 입법 검토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함을 제안하였다.